

다니엘 47 강

다니엘서 12 장 4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담고 그 책을 봉하라.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하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 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될것이니라.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는 여기 말씀대로 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죠? 우리가 성도들이 환란 직전에 휴거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니엘만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대략 2 천 몇백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린 아이들이 혼자 읽다 보면 감당을 못해 가지고 두려움이 와서 정신이 돈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짜피 성경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이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되요. 혼자 읽다보면 애들이 무서워 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가르쳐야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깨닫게 되죠. 궁금한 아이들은 성경을 읽거든요. 계시록 같은것은 특히 더 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처음부터 하나 하나 기초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체해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 앞에 있는 말씀 남쪽과 북쪽의 왕과 여러가지 군대라던가 술책, 거룩한 언약이 뭔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그때가서 훤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깨달아 알면 되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난 일과는 무관합니다. 단 하나 이런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 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그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하는 전도의 열정을 내게 하는 거지 사실 휴거된 성도들은 대환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 기초부터 잘 배우지 않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겁을 먹게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것만 보여 주고 결국 거듭남에 대해서는 안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 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특히 베리칩 같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안해주고 무조건 받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구원도 못받은 사람들이 그거 안받으면 천국 가는가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구원의 교리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서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먼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하나님의 씨의 생명이 들어가서 먼저 거듭나게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9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 에스겔 말씀들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의 종들부터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면 다 알게 되요. 거듭나면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나왔는데 다 깨달으시더라구요. 거듭나면 알게 되죠. 눈이 열리면 보게 되있죠.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거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밝혀 주는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시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있는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에덴에서 쫓겨나 가지고 노아때까지 주신 말씀도 있고 노아 때부터 또 아브라함때까지 주신 말씀도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때까지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피흘리신 다음에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지금 2 천년이 지났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 안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것으로 첫째는 교리요 그다음에 책망이요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요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셨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중점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게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걸 알아야 되요. 이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사운드 오브 마인드(Sound mind). 그런데 개역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근신하는 마음이 무슨 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자로 써놨으니까. 영어로 사운드 마인드예요. 사운드 마인드라는건 정신적으로 아주 맑다는 거예요. 사운드 마인드가 뭐죠? 미치면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죠? 크레이지 마운드예요. 정신병도 크레이지 마운드죠? 사운드 마인드라는건 정신이 말짱하다. 하나님이 주신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게 아니예요. 이걸 사단이 준거죠. 사단이 어떻게 주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줘가지고 두려운 맘을 줍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누가 말할 때 두려운 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6,7 장은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앉아서 가지고 거기서 헌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거기 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왕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네 생물 네 짐승이 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도 문이 네개 있죠? 이것도 사복음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제단이 있죠?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피로 씻김 받고 용서받아 가지고 그 다음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항상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의 먼지를 다 떼어내 버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열두개의 떡, 여섯개 여섯개, 66 이죠? 66 권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여기 이 책을 봉하라. 그랬는데 그 책이 어디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0 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책을 먹으라. 한번 찾아 봅시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 나타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와 비교해 볼때는 분명히 그때 다니엘이 봉했으니까 다니엘이 열수가 있잖아요. 계시록 10 장 5 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책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8 절보면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어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퍼 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분명히 이 책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올 것이다. 요즘도 요한계시록 증거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때 다니엘 시대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때는 아 맞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쓰여진 거죠? 요즘 얼마나 바쁘게 달립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인사할때 보면 바쁘시죠? 하죠? 항상 바쁘시죠야. 참 희한해 우리 민족들은. 자꾸 바쁘시죠? 하면서 바쁘게 만들어. 평안하시죠? 그러지 않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것도 우리 시대에 정말,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제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전혀 이걸 몰랐어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30 년전만 해도 그때가 85 년 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지금 요만한 칩에 들어갈게

집채만한 컴퓨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빨리 빨리 지식이 증가하는게, 21 세기 오늘날에 와가지고 성취된 최대의 예언중의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증가하는게요 현대인의 지식이란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전세계의 모든 것이 들어 있잖아요? 그거 보기도 바쁘죠? 뉴스에 보니까 서점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책이 안팔린데요. 세상 책도 안팔리는데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도 보였는데 이제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식이란게 하나님에 대한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데 이용하는 지식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 장 20 절. 사도바울도 예언했죠?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부터 과학이 조금 태동하기 시작했죠? 철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게 철학자를 얘기하죠? 이런 것에 절대로,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일수록 정말 세상에 있는 그것들에 현혹되면 안되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스승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3 장 5 절부터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인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 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가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처음에 3 장 16 절에 교리가 나오는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게 뭐냐하면, 건전한 교리란게 뭐냐하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휴거, 대환란, 심판, 주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영원세계.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일들. 이게 교리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떠나서 사람들이 안가르치잖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예화나 들고 무슨 이야기들이나 하고. 옛날에 누가 쓴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걸 성경과 비교를 하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2 천년 전에 사도바울이 경고했죠? 얀네와 암브레가 누군가하면 모세가 기적을 행할때, 지팡이를 던져 가지고 뱀을 만들때, 나도 할수 있다 마술사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예요. 모세가 뭐 잘난게 있나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거거든요. 모세를 보게되면 존경할게 없죠?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얀네와암브레가 되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에 들게 되면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니까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자 5 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이 다니엘은 지금 10 장에서 11 장 걸쳐 12 장까지 한 곳에 서있는데 바로 히데켈이라는 큰 강변이예요. 히데켈은 티그리스 강이예요. 거기에 계속 서있습니다. 꼬박 3 주간을 애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한 주의 천사, 주님이죠? 그 분을 10 장 5 절에서 만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 줄려고 찾아왔던 주의 천사가 4 절까지 다니엘의 백성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4 절에서 그 예언이 잠깐 끝나고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강둑 양편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히 천사들이란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냥 사람이 아니란걸 우리가 알수가 있죠.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6 절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세마포를 입고는 강물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묻죠? 다니엘은 결국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결국 이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님밖에 할수가 없죠? 주님인 것을 알수가 있죠. 7 절에 가보니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 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외리라.” 하더라.]** 강물에 서신 채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 장에 가보세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 장 5 절 보게 되면 아까도 읽었는데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더라.]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일곱째 천사, 마지막 7년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때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는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타났죠?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 자기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같은 종이다. 분명히 이걸 십중팔구 다니엘이란걸 우리가 성경을 알게되면 스스로 깨달아 질수 있겠죠? 결국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닫혀 있고 봉해져 있죠.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열려있죠? 요한계시록이 열려 있으니까.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 준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걸 묵시록이라 그래요. 어릴 때 신약성경을 순서를 배울때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식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유다 묵시

그랬어요. 지금도 그 노래를 제가 부를수 있어요. 지금도 순서를 넘길때 그걸 기억하면서 넘기면 순서가 그냥 나와요. 구약도 그렇게 하면 나오고요. 노래로 배웠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유다 묵시. 난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면 안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장로교에 다녔기 때문에, 칼빈 선생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리고 칼빈이 그때 요한계시록 했으면 그는 죽었어요. 카톨릭에게. 거기에 로마교회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로마교회가 서슬이 새파랬죠? 다 죽일때니까. 왕까지도 파문할 때니까. 그러니까 못했죠? 장로교 사람들이 칼빈 선생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요한계시록 하느냐.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2 장을 며칠 동안 첫사랑을 버렸다 이 강해를 하시다가 괴한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심장을 칼로 도려내 가지고 그냥 설교하시다가 피가 낭자해 가지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625 때도 순교하실려고 기도한 분인데 그때는 순교가 안되고 소원대로 순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 수록 닫혀 있고 봉해진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일에 벗겨지고 있죠? 다시말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조금씩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리칩, 앞으로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도표를 그린 클라라 라켄스나 스코필드 같은 사람 이들도 킹제임스 성경만을 썼지만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던 케이스는 그들만이 알았고 그것이 디엘 무디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더 열려지고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이 열려졌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더 많이 아는게 아닙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은 점점 향상된 계시입니다. 시대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거죠.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볼때도 아 이거 뉴스다 볼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는구나 이걸 알려고 뉴스를 보는거지요. 아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거든요. 사람들의 말속에서 또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저 중동 지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이걸 보면서 말씀이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나 존 칼빈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후세 사람이 알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가 있죠. 꿈을 꿉서 아는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봐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알수있죠. 결국은 성경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알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닫혀진채로 그냥 미궁속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요. 10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된다. 요한계시록 16 장 15 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환란때 일어날 일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오시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세마포로 단장해라. 이런 얘기죠? 대환란때 이러날 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서와 똑같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건 의로운 행실을 지키라. 의로운 행실을 지킨 자들을 계시록 14 장 12 절에 보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유대인들, 여기 성도는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녜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여기 성도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라구 성도들이 환란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도 그러면 다 크리스찬인줄 알아요. 진짜 최초의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유대인들이 잠깐 꺾여 가지고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1 월 27 일날 Jews for Jesus 의 스텐마이어(Stan Meyer) 형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건데 어제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한 2 년 전에 만나고 못만났어요.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 이렇게 고난이 많더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더라구.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루게릭 병은 근육이 다 빠지는 병이에요. 희귀한 병이고 고칠수 없는 병이에요. 울먹이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나와 가까우니까 울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딸을 입양해 가지고 18 살밖에 안되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 일을 다시 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환란때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명도 지키죠? 은혜시대가 지났으니까 다시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 물론 천년왕국때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때 구원 못받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예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날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 아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받을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2 천년 전에. 그래도 저 양심시대에 사람들은 착했거든요. 양심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류역사 4 천년이 지나고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됐던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속량했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감사할거 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또감사 교회가 생겼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감사를 안하니까 또감사 교회가 생겼다잖아요. 사실 맞는 얘기에요. 또 감사 또감사 해야 해요. 입만 열면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먹습니다. 어렵고 힘들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와요 나에게.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냥 아파도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선 떠나 버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감사를 놓치면 안되요.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환란에 안넘어가는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죽고 죽어 뭐 백골이 진토되도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왕 앞에서도 그랬는데 진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못할게 뭐있어요? 마귀 앞에서 이 몸이 죽고 죽어도 주님 향한 이 마음 독야청청 하리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거고 다니엘서의 11 장까지의 말씀들이 12 장에 들어오면서 그 기록하신 목적이 이 땅에 대환란이 올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읽질 않아서 앞으로 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될 교리의 말씀들을 알지 못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며 사람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좇으며 사람의 간증 듣기를 좋아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간증 앞으로 될 일 교리들을 배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란 말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가 교단의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책을 다 먹어 버리고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환란에 넘어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세계방방곡곡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